

| 2013년 주님의교회 표어 |

일어나라 (이사야 60:1)
빛을 발하라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15

| 오늘의 말씀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 6:9

2013년 8월 25일 주일 제 322호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아프리카의 웃음

케냐는 지금 겨울, 적도에 가까운 나이로비의 날씨는 한국의 초가을 정도로 쌀쌀하다. 척박한 땅에, 건기여서 먹고 씻을 물도 귀하고, 발동기를 돌려 얻는 전기도 종종 끊긴다. 하지만 리무르 지역 키쿠유 족 여자 고아원, 짓다 만 건물에도 햇살은 내려앉고, 주님의 은혜 아래 만난 소녀들의 웃음은 티 없이 맑다. 이 웃음이 아프리카의 미래이니, 하나님의 빛으로 이 미래를 밝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임일 터이다. 그들이 있어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는 곳, 베트남, 케냐, 키르기스스탄, 헝가리, Z국에 주님의교회 비전트립 팀이 다녀왔다.

▶ 관련기사 6면 **함즐함울**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 역사 이야기 > 2

교회 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3

여름 캠프 > 4

비전 트립 현장 보고서 > 6

부르심의 길에 서서 > 12

우리 신문은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9

이슬람의 팽창

마호메트와 그의 뒤를 이은 칼리프(Caliph)들에 의해 이슬람의 영토가 점점 확대될 무렵, 페르시아 지역은 사산왕조가, 그리고 서방세계는 로마 비잔틴(Roman Byzantine)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다. 비록 마호메트는 632년에 운명하였지만, 이슬람 세력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갔고, 결국 페르시아와 로마 비잔틴 제국에 강력한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마침내 638년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군대에 의해 함락되고 말았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이슬람 세력은 계속해서 유럽 남부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공격해, 7세기경의 유럽 남부는 극도로 혼미한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 710년 아랍 무슬림들이 스페인까지 상륙하게 됨에 따라 유럽인들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아프리카 북부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한 이슬람 군대가 모로코를 지나 이베리아(Iberian) 반도에까지 침공해 들어감으로써, 유럽 지역의 일부가 마침내 이슬람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슬람 세력의 팽창을 경험하기 전, 로마제국의 기독교는 고트족, 게르만족, 스칸디나비아족의 팽창을 기독교 문화권 안으로 흡수하면서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로마제국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오던 야만족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킴으로써, 혹은 로마제국의 군사적인 힘으로 강제적인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유럽의 기독교화(Christiani-

zation)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슬람의 태동과 팽창은 유럽 야만족들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달랐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기독교의 팽창이 외부세력에 의해서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외부세력의 공격을 받고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 초래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서방 기독교의 입장에서 본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에 소속되어 있던 소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이슬람의 팽창을 환영하였다. 페르시아의 공식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아오던 기독교인들은 마호메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학자 기본(Gibbon)에 의해 유명해진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전혀 적용되지 않는 말이다. 그 까닭은 마호메트는 초기에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슬람 영토가 이처럼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슬람의 역사가 시작된 지 30년 후인 652년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페르시아 제국의 사산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죽고, 대부분의 영토가 이슬람 군대에 귀속되었다. 8세기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조로아스터교도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물론 초창기의 이슬람이 아라비아 반도 안의 아랍인들을 개종시킬 때 어느 정도 무력에 의존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이 팽창됨에 따라 아라비아 외에 비(非)아랍인들에게는 매우 평화적인 개종 방법이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코란에서는 강압적인 이슬람의 선교를 금지하면서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 강압적인 방법은 없다”(코란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낙타를 사막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아랍인들을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중계무역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슬람의 팽창으로 이러한 유럽과 아시아 간의 국제무역을 중단되자, 그동안 인도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국에서까지 들어오던 값비싼 향료와 각종 진귀한 아시아 물



이슬람 세력의 최대 영역과 진출방향

2:256)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의 이슬람의 급팽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슬람 정권이 제공한 세금감면정책(Jizya)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비아랍인들에게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900년까지 약 80%에 달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거주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다.

7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지리적 팽창은 유럽 국가들에게 심각한

품이 유럽 유입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유럽 경제의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의 군주들은 이런 불리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지방 영주들에게 종전까지 충성의 대가로 지급하던 현금이나 금은 보석 대신에 일정 토지를 지불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토지의 분배는 결국 유럽의 봉건제도(Feudalism)를 잉태시키는 경제적 원동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강찬 목사

📖 성경 - 한자로 풀어보기 47

民數記 민수기 (Numbers)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曠野(광야) 會幕(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會衆(회중) 각 남자의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名數(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민수기 1:1)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구민수기(Numbers)는 원래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bemidbar)다.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이 책 첫 구절을 따서 제목을 붙인 것이다. 그런데 라틴어 성경에는 ‘리베르 누메리’라고 책 제목을 붙였는데 이 뜻은 ‘셈하는 책’이라는 의미다. 이는 민수기에 백성 수를 세는 인구 조사를 두 번이나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말 성경도 백성 수

를 센다는 뜻의 민수기(民數記)라는 이름을 붙였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民(백성 민): “모이다”의 뜻이 있는 一(한 일)과 “성씨나 씨족”을 뜻하는 氏(각시 씨)가 결합되어【씨족이 뒤엉키듯 모여 이루어진 민족 집단이 백성이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數(셈 수. 자주 사. 촌촌할 축): 婁(어리석을 루)와 “두드리다. 위하다.

애쓰다”의 뜻을 지닌 攴(지칠복의 변형체 등 글월 문 방)이 결합되어【어리석게도 낱낱이 두드리면서 셈한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婁(어리석을 루): “짐을 가로로 엮고 세로로 엮다”의 뜻이 있는 冊.串(쥬 관)과 “여자”를 뜻하는 女(계집 녀)를 결합시켜【짐을 가로 세로로 엮어 머리위에 이고 가는 욕심 많은 여자가 어리석다】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함줄함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오용되는 기독교 용어 연구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성가대’가 맞을까,
‘찬양대’가 맞을까?
오랜 관습을 통해
잘못 써어온
기독교 용어들,
이제는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기도 드렸습니다’가 맞을까, ‘기도 드립니다’가 맞을까? ‘성가대’가 맞을까 ‘찬양대’가 맞을까?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어느 쪽이 옳은지 명쾌한 설명을 하기란 쉽지 않다. 교회에서 기준으로 삼는 성경의 문체가 일상적이지 않은데다가, 교회 안팎에서 오랫동안 관습처럼 사용해온 용어들어서 용어에 대한 논의 자체도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5일 한국기독교공보에는 “비 성서, 비 신학, 비 기독교적 낱말 고쳐야”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발전연구원에서 6월 3일 개최한 ‘한국교회 잘못된 예배용어, 이것만은 고치자’라는 주제로 열었던 연구발표회의 내용을 보도한 내용이었다. 이미 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는 2001년과 2002년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는 2004년에 교회 용어의 적절성을 연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배학 교수, 국문학 교수, 아나운서, 목회자 등으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문제적 용어 약 150개를 선정, 성서적인가, 신학적인가, 기독교적인가, 어법의 오류는 없는가 등을 검토하였으며, 72개 용어에 대해 ‘사용불가’와 ‘변경’을 판정한 것이다. 함줄함줄에서는 이 연구 결과가 주님의교회 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아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발제문의 원문 게재를 허락받았다. 지면 사정으로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요약해 연재한다.

함줄함줄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기도 용어 편 1

당신(X):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O)

기도 중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와 같이 하나님을 ‘당신’이라 부르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당신이 주신 돈으로 이것을 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표현이다. 기도할 때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직접 들으시는 분이므로 2인칭이다. 우리말 2인칭 ‘당신’은 결코 존대어가 될 수 없다. ‘당신’은 3인칭에서만 극존대어로 쓰이는데, 만일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게 ‘당신’이라고 부른다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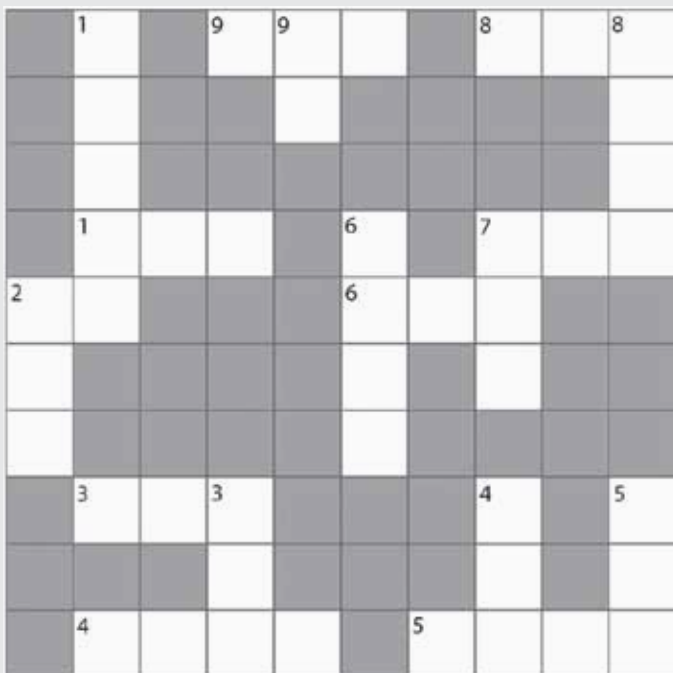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X):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O)

기도를 끝낼 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같이 동사 ‘기도하다’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써야 한다. 5분이나 10분전에 기도를 시작했으므로 문법적으로는 이미 과거 또는 현재완료가 되어 동사 ‘기도하다’의 과거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祈禱)는 글자 그대로 그 핵심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의 간구다. 간구의 내용은 소원이며 소원은 미래 지향적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영원한 현재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끝내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우리 성도님들이(X): 저희들이, 교회의 권속들이(O)

국어 존대법에서는 청자(聽者)가 최상위자일 경우 다른 어떤 인물에게도 존대를 쓸 수 없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셨어요.”에서, 청자인 ‘할아버지’가 최상위자이므로 ‘아버지’와 ‘나’는 존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 “할아버지, 아빤이 갔어요.”가 맞는 표현이다. 공중기도에서 기도 인도자는 회중과 동일한 입장, 동일한 위치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회중을 가리켜 ‘우리 성도님들’이라 존대를 해서는 안 되며, ‘저희들이’거나, ‘교회의 권속들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법에 맞는다.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열왕기하편



가로

1.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다백성을 포로로 만든 나라는?
2. 부상을 치료하던 중 새로 기름부음을 받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나뭇잎에 던져지는 이스라엘왕은?
3. 아람왕 벤하닷을 살해하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했던 사람은?
4.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 키우다가 왕으로 세우고 도왔던 제사장은?
5. 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아뢰어 15년을 더 살았던 왕은?
6.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7.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부수고 율법을 지키고 율월절을 회복시킨 유다왕은?
8. 엘리사의 사환으로 탐욕 때문에 나병을 얻은 사람은?
9. 아람의 군대장관으로 엘리사에게서 나병을 치유 받은 사람은?

세로

1. 여호와께서 무엇을 이용하여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셨나?
2. 엘리사가 스승의 겹옷으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강은?
3. 엘리사가 시종들던 선지자는?
4. 앗수르의 이방 제단을 모방하여 만들고 여호와와 성전을 제멋대로 뜯어고친 유다왕은?
5. 히스기야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6.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37년 만에 석방되었던 왕은?
7. 일곱 살에 유다 왕이 되었고 파괴된 성전을 수리했던 왕은?
8. 유다가 멸망당할 때의 유다왕은?
9.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 이방 신에게 의뢰했던 악한 이스라엘왕은?

지난호 정답

- 가로 1.미가야 2.오므리 3.르호보암 4.여호사밧 5.두로 6.보아스 7.시드기야 8.바아사 9.금송아지 - 세로 1.아히야 2.오바나 3.세미한소리 4.여로보암 5.엘리사 6.브나야 7.사독 8.아도니아

하나님을 만난 복된 시간들, 2013 여름 캠프!

유아부



유아부 교사로서 맞은 다섯번째 여름 성경학교는 언제나 그렇듯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프랑스 철학자가 말했듯, 맑고 투명한 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경학교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비로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함께 한 아이들과 더불어 깨달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뜨락에 심으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 향기 좋은 열매를 맺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세상과 나누는 아이들이 되기를 조용히 바래봅니다.

정하나 교사/씩트네

초등부

햇살뜨락 여름성경학교는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라는 주제로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용인 한터캠프에서 90여명의 학생들과 40여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센터 게임, 워터페스티벌, 조이페스티벌에서는, 몸으로 부딪치며, "이겨라! 이겨라!"를 외치며, 마음을 모으고 또 경쟁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 미꾸라지 잡기,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물썰매 타기, 라인 댄스, 그리고 흰 티셔츠를 입고 야광 스틱 놀이를 하며, 책상 앞에 움츠려 있던 몸과 마음을 마음껏 펼쳐내었고, 찬양과 율동을 통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뛰어 놀았습니다. 식사시간 마다 꼭 통과해야하는 그 날의 성경 구절 외우기가 살짝 부담되기는 했지만, 처음 먹어보는 오징어채 무침, 매끼 나왔던 시원한 수박, 물놀이 후 핫도그와 옥수수, 그리고 조이 페스티벌 후의 컵라면 야식까지 푸짐한 먹거리가 우리를 즐겁게 했습니다.

캠프의 절정은 예수님 만나기 위한 말씀과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 밤에, 이 시간이 마지막인 줄 알고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자고, 소은혜 전도사님은 잔잔하게 그러나 호소력 있는 말씀으로 아이들의 심령을 움직였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간절함으로 기도하자며, 선생님들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고 중보해주셨고, 어느덧 친구들의 기도소리와 흐느낌이 강당을 채우는 가운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

유치부

2013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7월27일(토)~28일(주일)에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10명의 유치부 어린이와 33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는 27일(토) 10시에 여는 예배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운 성경학교 찬양과 전보영 전도사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 예배였습니다. 유치부 학부모님들을 위해 지대근 목사님(온누리교회)을 강사로 믿음으로 하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오후에는 4개의 활동센터를 조별로 다니면서 게임을 통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준다는 게 무엇인지 몸으로 익히는 재미있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물놀이 장소를 준비해주셔서 신나는 물놀이를 했습니다. 온 교회에 어린이들의 즐거운 소리가 퍼져서 그 소리만으로도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여섯 살, 일곱 살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믿음을 배우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신 선생님들,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신 부모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모든 준비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보영 전도사



음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캠프 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를 폭우로부터 완벽히 비켜가게 하였고, 친구들이 교회에 도착하여 집에 거의 다 돌아갔을 무렵에야 소나기를 오게 하시며, 속삭이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라고...

김애리 교사/초등1부

소년부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이천에 있는 덕평수련원에서 소년부 친구 96명과 교사 40여명 총 136명이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라는 주제 아래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3가지 변화(시각, 말,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의 신앙 훈련과 다양한 공동

체 훈련을 하며 재미있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주제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인물의 일대기 가운데 나누어 받은 장면들을 각 조별로 스마트폰으로 찍어 발표한 스마트 영화제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의 달란트와 모두가 다함께 참여한다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귀를 통해 들은 말씀을 연기, 연출, 의상디자인, 촬영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더 깊이 알게 된 멋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배운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의 삶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빠진 가족을 구하기 위해 나선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서 착안한 ‘아비가일의 러브 쿠키’는 독창적인 요리를 만든다는 재미와 함께 이 또한 체험을 통해 성경 인물을 경험한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적인 시각’과 ‘말과 말투’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기로 바꾸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소년부 어린이들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크신 위로를 느끼게 해준 성경학교였습니다. **문규호, 방윤주 전도사**

중등부



“100-1=0”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취해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단 하나,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주제 말씀처럼 이번 팝콘트리 여름 수련회동안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가득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는 꿈쩍도 안하던 중등부 학생들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춤을 추고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성일 전도사

청년부

청년부에서는 6월 27일(목)~29일(토)에 국제광림비전랜드(경기도 남양주시 소재)로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The Love Feast : Eat! Pray! Love!’(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에는 박원호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청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청년들은 권수영 교수님(연세대 목회상담학)과의 집회, 각종 공동체 프로그램과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 고민하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삶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할 신비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삼열 전도사



2013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2013 비전 트립, 이렇게 진행되었다

베트남, 케냐, 키르키즈, 헝가리, Z국

“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소명이다
비전 트립은
그 작은 돌다리를
쌓아가는 길이다**

비전트립의 개요

비전트립은 현장의 선교를 경험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절대적 소명이라 본다. 즉, 복음=선교 공식으로 크리스찬 이라면 깊이 기도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려보며 선교에 헌신해야 한다. 이번에 교회 차원의 선교 방향을 정하고 성도 각자의 선교 사명감 설계를 위해 80여분의 성도들이 각국 선교사들의 계획에 따라 특성에 맞게 5개국에 비전트립을 다녀오게 되었다.

우리 모두 간접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파송선교사란 해당 국가에서 직접 복음전파 하는 복음 불모지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역자들로 우리나라는 약 23,000명 정도가 파송되었고, 우리 교회는 아직 10명 미만으로 대부분 총회 선교부 파송, 주님의교회 후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총회 선교부, 주님의교회 해외선교 분과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생활문화, 음식, 언어, 예산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고 있다.

우리들 모두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교회에 혹은 기관에 기도, 헌금, 헌물 등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모두 간접 선교사가 되어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 설 때에 비로소 크리스찬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은퇴 전에 비전트립 체험을...

2년 전, 집중 선교 2개국(베트남, 케냐)에 MOU(양해각서)를 우리 교회와 체결할 때 비전트립을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현지에 가 본 결과 집중이라 하기에는 갈 길이 멀고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었고 왕성한 사역이 너무도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비전트립을 국, 내외 구분치 말고 은퇴 전에 한번이라도 경험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하신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항존직들은 모두 최소 한번 이상 비전트립을 경험하기를 권면한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얻은 감사 제목들

- * 하나님 자녀이기에 해외 선교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
- * 미약하였지만 직접, 선교사와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
- * 선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지혜 주심에 감사
- * 지구촌 빈민층의 영혼 구원 다짐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신정웅 장로/해외선교분과위원장

2013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베트남에서 부르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베트남팀은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베트남 빈롱성에서 의료사역과 집 짓기 사역을 하였다. 작년에 비하여 인원이 크게 줄었지만 대신 성도들이 정성껏 기증해 주신 많은 의약품, 학용품 및 사탕 등 선물을 포장하면서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드디어 출발일. 호치민 공항에 도착해서는 무사히 통과하여 바로 베트남 남부기독교총연합회(남부총회)기독교교육사무실을 방문하였다. 4월에 오셨던 뚜엣목사님과 흥, 틴 목사님을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가웠다. 호치민에서 주님의교회 교육교재가 베트남어로의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 감사했다. 다음으로는 남부총회를 방문하여 회계를 담당하시는 빈 목사님을 뵈었다. 이분은 우리의 겨자씨 헌금이 어떻게 25개 미자립교회 교역자에게 전달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우리 헌금이 한달에 최소 생계비 이하의 사례를 받는 목사님을 후원하는데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짠하였다.

밤 늦게 빈롱성에 도착하였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봉사를 시작하였다. 사역팀과 베트남 인민위원회 관계자가 인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예상치 않게 축복송을 요청하였다. 막스, 레닌의 사진과 호치민의 흉상이 지켜보는 공산국 베트남의 인민위원회 강당에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베트남어로 부르니 묘한 감동이 전해져 왔다. 의료진은 서둘러 약국을 개설하고 환자를 받기 시작하였고 집짓기 대원은 근처 집지를



곳으로 출발하였다. 사랑의 집짓기는 동네에서 가장 힘든 가정에 새집을 마련해 드리고 재활할 수 있도록 송아지를 드리는 사역이다. 집을 받게 된 씨이 할머니는 딸과 함께 수공예품을 만들어 납품하고 사시는데 오두막에서 어렵게 사는 모녀의 하루 일당이 우리돈 1,000원밖에 안된다고 하여 너무 안스러웠다.

집을 완성한 후에는 주택 헌정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은수 권사님이 놀라운 선교 마술과 웃음극을 보여주셨다. 마술과 웃음극을 통해 우리와 베트남 주민들은 모두 즐겁게 웃을 수 있었다. 또한 집짓기 사역 중간에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풍선아트, 막대 사탕과 학용품 등을 전달하니 그 행복해하는 얼굴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다.

이틀에 걸쳐 500여명의 환자 진료와 세채의 집 완성이라는 사역을 끝내고 토요일에는 우리 겨자씨가 후원하는 두교회를 방문하였다. 그중 B성 H교회의 N목사님은 과거 D성에서 900석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안정되자 어려운 이곳으로 노부가 자원하여 오셨다고 하였다.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10여명밖에 없던 교인이 지금은 15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한달 헌금이 50만동(우리돈 2만7천원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생활이 어려울지 잘 알 것 같았다. 교회건물이 오래되어 여기 저기 비가 새고 있었고 형편이 어려우신데도 우리에게 맛있는 저녁을 정성껏 대접해 주셨다.

이번 비전트립은 모든 대원이 더운 날씨에 구슬땀을 흘렸지만 모두가 은혜를 많이 받은 트립이었다. 너무도 가난한 베트남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전도가 금지된 공산국에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베트남 목사님들을 보면서 숙연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하여 우리 팀원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갈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주님께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최화평, 김덕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잘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이번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김용규 집사

2013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케냐, 척박한 사바나에 뿌린 믿음의 씨앗

케냐 비전트립 팀을 태운 대한항공 직항기가 열세 시간의 비행 끝에 케냐 나이로비의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7월 27일 토요일 새벽 4시 40분, 미처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현지는 거의 적도에 근접해 있어 연중 해 뜨고 지는 시간은 6시 30분쯤으로 일정하다. 낮선 공항에서 각종 준비물과 선물, 약품이 든 십여 개에 이르는 커다란 이민 가방을 가운데 놓고 홍완식 팀장을 포함한 열두 명의 팀원은 도착 감사기도를 드렸다.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키쿠유 족 지역인 리무르와 마사이 족 지역인 나록에서 남 여 고아원 운영을 책임지는 등 19년 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원재 선교사와 나이로비의 총회 간부가 직접 나와 도와준 덕분에 통관을 쉽게 마치고 공항 밖을 나서자, 케냐의 아침이 어스름 밝아오기 시작했다. 당장 이날부터 케냐 비전트립의 고되었지만 은혜 안에서 보람이 가득했던 일정이 진행되었다.

케냐 비전트립의 주된 내용은 고아원 방문 및 의료봉사 활동이었다. 첫날은 이원재 선교사와 진은현 선교사 부부의 안내로 리무르 지역에 있는 키쿠유 족 여자 고아원을 방문했다.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고아원 건물은, 교실을 만들기 위해 건축을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태로 기초공사 위에 기둥들이 세워진 채 철골이 드러난 을씨년스런 분위기였다. 어린이들을 넷으로 나누어, 가족 지갑 만들기 반, 면 가방 그림 그리기 반, 고학년 대상의 리코더 수업반, 그리고 의료검진 반으로 배치하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모든 반을 거치도록 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



점심을 함께 하고 자전거 등 선물을 증정했다.

이튿날은 주일이어서 마사이 족 지역 별판 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 원주민들의 길고도 흥겨웠던 위십을 함께 하고, 준비해 간 공 등 선물을 증정했으며, 오후에는 마사이 족 지역인 나록으로 이동하여 남자 고아원을 방문했다. 약 30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족 지갑 만들기, 모자에 그림 그리기, 의료검진을 진행했고, 닭장을 만들고 살아 있는 닭을 기증해서 달걀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전 청소년들에게 미리 현지에서 준비했던 가족 구두를 신겨 주기도 했다.

이후 이틀 동안은 나이라시라사 지역에 있는 마사이 족 보건소에서 현지인 건강 진단과 치료, 투약을 진행했다. 돌도 안 된 어린 아기부터, 붉은 망토를 두르고 전통 지팡이를 짚은 80세가 넘는 어르신까지 약 200여 명을 직접 진료했고, 400여 명의 학생들에게는 구충제 등을 투약했다. 이 보건소와 교회, 인근 학교는 오래 전 한국인 선교사의 주도로 마련된 것이어서, 현지 주민들도 한국인에 대한 인상

을 좋게 갖고 있어 반가웠다. 8월 1일에는 담임 목사님 일행이 도착하여 인사를 나누고, 다음 날 동아프리카 장로회 신학대학 교정에서 기독교교육연구소 기공식과 기독교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계절적으로 겨울에 가까운 건기여서 아프리카답지 않은 쌀쌀한 날씨에, 숙소에서는 전기도 종종 끊기고 더운 물도 잘 나오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1살 어린이와 대학 1학년을 포함, 6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팀원들이 모두 술선해서 다양한 과제를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현지 선교사는 '비전트립'팀이 아닌 '비전드림'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간의 토론을 통해, 일회성, 전시성인 방문이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자립을 돕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교회 교육 역시 주일학교와 예술 교육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좋은 계기였다. 바쁜 일정 가운데, 이동 중 짬을 내어 경험할 수 있었던 마사이마라의 사파리 체험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장경식 집사

2013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키르기스스탄, 중앙 아시아의 알프스에서 태권도를 보다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 5개국 중의 하나로 국토면적은 한반도와 비슷하나 인구는 약 500만이다. 국토의 90%가 산악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이며, 80여개의 민족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700정도로 최빈국 수준이다. 종교는 이슬람이 75%, 러시아 정교가 20% 기타종교 5%로 중앙아시아의 미복음화된 지역 중 하나이다.

윤영수/김미숙 선교사는 젊어서부터 선교에 헌신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19년째 선교사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윤영수 선교사는 태권도를 통한 선교를, 김미숙 선교사는 치위생사로 치위생사역을 통해서 키르기스스탄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2009년 파송을 받아 수도인 비쉬켈을 중심으로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윤영수 선교사로부터 올 해는 선교사 자녀 여름 성경학교를 주님의 교회 비전트립 팀이 주관해 달라 는 요청이 있었다.

7월 23일 저녁 7시에 인천공항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 현지 시각 새벽 2시에 숙소로 도착했다.

첫날 아침 8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준비물을 챙긴 후 오전 10시경 성경학교 장소인 비쉬켈 한인 교회로 이동하였다. 교회에 도착한 후 목사님 인도로 경건회를 가진 후 본격적으로 우리 비전트립 팀과, 현지의 지원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시작했다. 약 50명의 초등학생과 10명의 유치원 아동이 등록하였다. 참가한 아이들은 대부분이 선교사 자녀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여름방학이 6월초부터 8월말까지 약 3개월간 주어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문화체험이나 방학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무료하게 3

개월을 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비쉬켈 지역 한국아이들 전체가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것은 가뭄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이 소중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는 “구약의 파노라마”이었다. 구약의 역사 중 중요한 부분을 몸동작으로 표현하여,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강의 중간에는 본교회에서 운영중인 어와나 게임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진행은 비전트립팀 신성철집사와 그 가족들이 주관하였다. 오랜 어와나 경험으로 진행하였기에 아이들이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성경학교를 마치는 날 그동안 배운 내용을 조별로 시험을 봤는데, 어려운 문제도 거의 다 풀어낸 것을 보고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그동안 조별활동과 게임의 점수를 모두 합해서 조별로 순위가 정해지고, 순위에 따른 달란트잔치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성경학교를 마무리하였다. 2박 3일의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윤영수/김미숙 선교사 가정에서는 가정교회인 ‘미르교회’교인과 현지사역자 부인 몇몇이 수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비전트립에 동행한 김정애 집사가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현지인들에게 전수해 주어, 이들이 자활할 수 있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자원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뜨개질은 물론, 머리핀을 제작하는 방법도 현지인들에게 전수하였다. 제작한 머리핀 몇 개는 성경학교 달란트잔치에 상품으로 내놓기도 하였다.

다음날 우리는 현지인의 생활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6



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이식쿨호수를 지나서 ‘큰살구나무마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곳은 해발 2,000미터의 고산지대로 여름철 유목민들이 양과 소 그리고 말들을 방목하는 곳이다. 유르트라는 전통가옥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2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니 광활한 목초지가 있었다. 산 정상에는 만년설이 아직 남아있고, 넓은 목초지에는 양과 소가 함께 풀을 뜯고 있었다. 앞으로는 이식쿨호수가 보이고 호수 건너편에는 텐산산맥의 고봉들이 흰머리를 보이고 있었다. 왜 키르기스를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고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저녁에는 숙소에서 김미숙 선교사가 준비한 키르기스스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다. 지금은 비록 이슬람국가가 되었지만, 훨씬 이전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가 키르기스에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믿었고, 이러한 유적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키르기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그들 고유의 민족종교는 이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음날 김미숙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치과 사역지 3곳과 윤영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키르기스-한국대학교를 방문하고, 이

후에는 윤영수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KKC를 방문하였다. 현재 14명의 학생들이 태권도 수련을 받고 있는데, 한 눈에 보기에 너무 좁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열악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번 비전트립을 진행하면서, 현지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이슬람지역에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다. 태권도로, 치위생사로, 치과의사와 엔지니어로, 고아원 사역, 유치원사역, 교수와 사업가로 각자의 소명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금번 비전트립을 통하여, 선교현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매달 선교사와 소식지를 주고받고, 수시로 연락도 하지만 현지를 보기 전에 피상적으로 느꼈던 선교지와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송된 선교사와 후원하는 선교사와의 이해와 공감의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홍 집사/팀장

2013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헝가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 오스트리아 동쪽에 접해 있는 나라로 수도는 부다페스트, 인구는 약 천만 정도이며 종교개혁 운동이 왕성했던 나라 중 하나로 지금도 에큐메니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회 선교부와 주님의교회 파송 선교사인 정채화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고 수년 전 청년부에서 비전트립을 다녀온 곳이기도 합니다.

김기창 안수집사를 팀장으로, 유기영 지도 목사를 포함 13명의 팀원들이 7월18일부터 7월 29일까지 현지를 방문하여 다양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번 헝가리 비전 트립 사역 목표는 첫째 종교개혁에 관한 공부, 둘째 헝가리 개혁교회 청년수련회 참가, 셋째 집시마을 의료봉사와 복음 전파 그리고 양로원 봉사 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에 관한 공부를 위해서는 두 군데의 개혁교회와 종교 박물관, 데브레첸 신학교 등을 방문하였고 이곳에서 오래된 교회와 유물 등을 보며 종교 개혁의 역사와 이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끼친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수련회에 참석해서 진행 본부의 의료팀에 준비해간 약품들을 전달해주고 사용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국가들로부터 온 젊은이들을 위해 김선미 집사를 중심으로 위십 찬양을 하였고 한국 차를 대접하여 뜨거운 호응도 받았습니다.

집시마을 사역을 위해서는 김선화 집사(의사)와 박현희 집사(약사)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를 하였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풍선을 불어주며 놀아주었습니다.

위십 찬양을 두 번 공연하였고 한



국 차를 이들에게도 대접하였고 이분들에게 복음도 전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200여명 모여 이들에게 필통과 연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그네스 목사가 운영하는 슈바이처 양로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개혁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으로 105명의 노인들이 거주하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짧은 정채화 선교사님의 설교 후 정혜영 사모님 피아노 연주에 맞추어 예니의 바이올린 연주, 진석이의 첼로 연주, 예본이의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끝으로 트리오 연주에 이어 우리 팀의 위십 찬양 3곡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가져간 털모자 20명의 할머니들께 씌워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추가로 50개 묶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보람 있는 비전 트립이었는데 대한 대답은 서로 다르리라 생각됩니다만 한 집사님의 소감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후예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개신교를 꽃피우고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

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됨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뽐내는 부다페스트, 찬란한 문화유산과 대평원의 풍요로움을 간직한 헝가리, 그러나 제1,2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잊히고 왜곡된 복음의 땅이 된 헝가리, 공산주의 몰락 후 EU에 가입하여 옛 영광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IMF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나라 헝가리, 무엇보다 종교개혁을 위해 피 흘리신 선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가슴 설레는 땅 헝가리.

이 새로운 나라 헝가리에 새로운 복음을 전함으로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회복시켜주는 사역이 선교사님과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선교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경건회와 맛있는 음식 솜씨로 팀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신 유기영 목사님, 낮선 땅 헝가리를 친근한 땅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개신교의 뿌리를 만져보게 해주신 정채화 선교사님, 아름다운 부채춤과 헌신적인 의료봉사로 소외된 집시들과 노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김기창 안수집사/팀장

2013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

Z국,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그 땅’

아버지께서 아파하시는 땅. ‘그 땅’을 향해 저희 청년부 마중물선교팀은 총 14명이 8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그 땅과 Z국의 국경을 중심으로 돌며, 강 너머로 그 땅을 보고 여러 영혼들을 만나고 그 땅 가운데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1. 현장 중심 사역 내용

저희 마중물 팀의 주요 사역은 땅 밟기와 평강공주 사역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그 땅에서 탈출한 후 납치되어 인신매매를 당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Z국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생활하는 여성분들입니다. 저희 팀은 평강공주들과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큰 무언가를 함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매님들과 함께 팔찌, 목걸이를 만들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도 함께 뛰어놀며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저희 팀을 대접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사랑을 받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현장체험 중 받은 은혜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두 나라 국경지역인 강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굽이굽이 굽어진 길을 따라 창문 밖에 보이는 그 땅은 너무나도 가깝고 아름다웠습니다. 늘 멀게 느껴졌던 그곳이 이리도 가까운 땅이었고, 비록 나무는 다 잘려 없지만 푸르른 산과 마을들, 강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보며 그 땅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이동 내내 그 땅을 향해 손을 뻗어 그 땅의 주인이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곳곳에 붙어있는 선

전 문구들을 보며 그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느낌을 받으며 그 땅위에도 임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왔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곳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사들을 그 땅으로 다시 보내어 그곳을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땅의 회복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때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벅차고, 그 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국경지역에 놓인 다리에서 손을 뻗어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영혼들을 들어 쓰시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 선교 사명 이해

여전히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강공주들, 너무나도 삶이 힘들어 결국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강을 건너 Z국으로 넘어온 자매님, 친척을 만나러 Z국으로 왔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자매님과의 만남을 통해 결코 우리가 먼 사이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언제 다시 또 보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밖에 없



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었고, 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선교를 통해 각자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평소 그 땅의 회복에 대해 그저 막연하게, 혹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상황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저 나 자신의 문제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 앞으로의 신앙생활 변화

그리고 팀원들과 피드백을 하면서 역사에 대해 더 알아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와서 조만간 저희는 한국기독교역사에 대해 책모임을 가지려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로 성경책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힘써온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또 그 모임을 통해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지속적으로 품고 기도하려 합니다. 잠시 몇 달 선교에 기분에 취해하는 것이 아닌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공부 할 수 있는 저희 팀이 되어, 내년에도 그 땅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단기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지체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하는 것이 저희의 희망입니다.

5. 마치며

많은 안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신 현지 사역자 분들과 인자하신 모습으로 저희를 챙겨주셨던 김 선생님의 안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6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함께한 정재상 목사님과 이정민 전도사님, 김낙균 집사님, 하에녹 간사님과 우리 팀원들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저희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앞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지속적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효정 청년부/팀장

■ 부르심의 길에 서서

잘못 탄 버스 안에서



부르심의 길, 부르심으로의 인도 하심은 참 다양합니다. 인격적이 시고 각 사람에 맞게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도 적합한 방법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잘못 탄 버스 안에서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을 만큼 황량한 겨울 날씨였던 어느 날 저는 집으로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만 멀리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질문이 마음 속에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머릿 속에는 마치 U턴 표지판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그 날부터 저는 혼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정기적으로 가던 예배에도 가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예배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도 나를 향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한 달쯤 나뉘는 구별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게 부르심'이라는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인도 하심만 구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실망하실 거라는 생각에 집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뭔가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큐티를 하는데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은 좋은 소식이니 말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신학대학원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나를 두고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게 싫어서 한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때문에, 또는 억지로 부르심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또다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0)"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품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여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보영 전도사

■ 교회 단신

사랑나무 수련회



7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사랑나무 수련회가 열렸다. 경복궁 나들이에서는 근정전, 경희루를 관람하고 고궁 속 숲 향기와 물빛 가득 시원한 바람을 따라 걷기도 했고, 교회 안에 마련된 풀장에서는 물에 흠뻑 젖은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 품에 안긴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했다. 나들이를 도와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린다. 정은숙 전도사

청년부 국내 선교 사역



청년부에서는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동해시 하늘꿈교회(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소재, 담임 신화식 목사)로 국내선교 사역을 다녀왔다. 주님의교회 이미용팀 및 의료팀과 협력하여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어르신 집안청소, 이미용사역, 의료사역 및 발마사지, 장수사진 촬영, 마을잔치 등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사역을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 하늘꿈교회가 이 지역에 잘 뿌리내려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정민 전도사

■ 신임 장로 담당 분과 지정

- 노봉옥 : 복지분과 - 정종국 : 북한선교분과
- 강진식 : 봉사분과 - 이용수 : 문화예술분과

■ 교회 사역 일정

- 9. 1 (주)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9. 3 (화) 예친사 개강, 양육 클래스 개강
- 9. 4 (수) 겨자씨 인도자 개강
- 9. 8 (주) 정기 당회
- 9. 10 (화) 늘푸른 대학 개강